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비문학 해설지

해설지를 읽기 전에

1. 본 해설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평가원 모의평가 기출 비문학 지문과 그 문제들을 다룹니다.

2. 각 지문별 해설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됩니다.

– 실전 독해 : 시험장에서 지문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를 상정하여 독해합니다. 필자의 사고 과정이 그대로 텍스트화되어 있고, 따라서 구어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 사후 독해 및 구조 파악 : 지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처음 읽었을 때는 놓쳤을 만한 부분,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이후 글 전체의 뼈대를 구조도를 통해 살펴보고, 각 문단별 주제가 어떻게 엮여 지문 전체의 대주제로 귀결되는지를 서술합니다.

– 문제 풀이 : 위 과정까지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합니다.

– 출제 항목 : 지문의 세부 사항 중, 실제 문제화된 내용을 항목화합니다.

– 플러스알파 : 그 외 필자가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 지문 및 문제를 대하는 태도, 행동영역, 기타 배경지식 등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3. 본 해설지의 모든 해설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무단 배포/복제/판매를 금합니다.

지문 및 문제

[1~3] 다음은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①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1.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자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 ②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인가?
-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받은 책인가?
- ④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 ⑤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2.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 ③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읽는다.
- ④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 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3. 밑글을 쓴 학생에게 ㉠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①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는 게 좋겠어.
- ②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 ③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
- ④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
- 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

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 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 ②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③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 ④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6.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 ②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 ③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 ④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7.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 ②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 ㉡의 결과로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 ③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 ④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 ⑤ ㉠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하고, ㉡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8.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대상: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기획 근거: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제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광고 개요: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

- ①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 ②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 ③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 ④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입(搬入)되므로
- ② 삽입(挿入)되므로
- ③ 영입(迎入)되므로
- ④ 주입(注入)되므로
- ⑤ 투입(投入)되므로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만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11.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②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⑤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과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에 입각하여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A]

-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가상 현실 장갑은 사용

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다.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A]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는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HMD : 머리에 쓰는 3D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

*시차 : 한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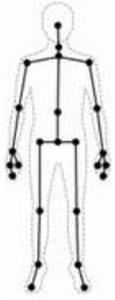
- ①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 ②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 ③ HMD는 사용자가 시각을 통해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 ④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 ⑤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 ②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한다.
- ③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⑤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그림>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는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면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키넥트 센서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 ①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 ②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 ③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
- ④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 ⑤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17.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
- ② 아내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을 조화롭게 맞추었다.
- ③ 우리는 다음 주까지 손발을 맞추어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 ④ 그 동아리는 신입 회원을 한 명 더 뽑아 인원을 맞추었다.
- ⑤ 동생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해설

[1~3] 다음은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실전 독해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미술사에 관한 책이 많은데 학술적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구나. '나' 역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하는 사람이네? 그럼 '나'도 학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 속하겠군. 그래서 고른 책이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네. 이 책이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졌나 보지 뭐.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며,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미술사에 대한 책이니까 당연히 그 이해 방법을 설명하겠지 뭐. 근데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 주목해? 아하 그럼 이 책은 미술사 그 자체보다는 미술사를 이루는 요소, 즉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통하여 미술사를 이해해 보겠다는 말이군! 그리고 구체적 숫자 표현이 나왔다. 서론의 저 구절을 27장에서도 재언급했군. 동일 표현이 반복됐으면 비교/대조하며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 OK.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제목이 '서양' 미술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후 목차 보고, 구체적 수치(28장) 나오고, 목차를 살펴봄으로써 알게 된 점 나오고(유럽 외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 되게 오랜 시기에 걸친 많은 나라의 미술을 설명하고 있구나. 대략적으로만 읽어 나가자. 숫자 표현에 체크만 해 두고. 책 내용이 방대해서 어떻게 읽었대? 자기가 관심 두고 있는 부분부터 읽고, 나머

지 이후에 읽었구나. OK.

㉠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 밑줄이니까 문제화 될 부분이겠네. 책이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이 어렵지 않아서 저자의 관점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네. 어? 근데 왜 밑줄일까 하고 잠깐 생각해 보니, 보통 책을 읽을 때 저자의 관점만을 무지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읽는 건 우리가 아는 ‘교과서적인’ 독서 방법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도덕책적인 방법은 여러 관점도 알아보면서 비교/대조해 보고, 내 생각도 끼워넣어 보고 하면서 읽는 거 아냐? 아 대충 어떻게 문제화될지 감 잡았고. 그 뒤론 분량 많아서 읽기 좀 빠졌는데, 하루하루 계획 잡아서 읽다 보니 다 읽었다고 한다. 무작정 읽은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읽었구나. 스스로의 독서 방식이라면 방식이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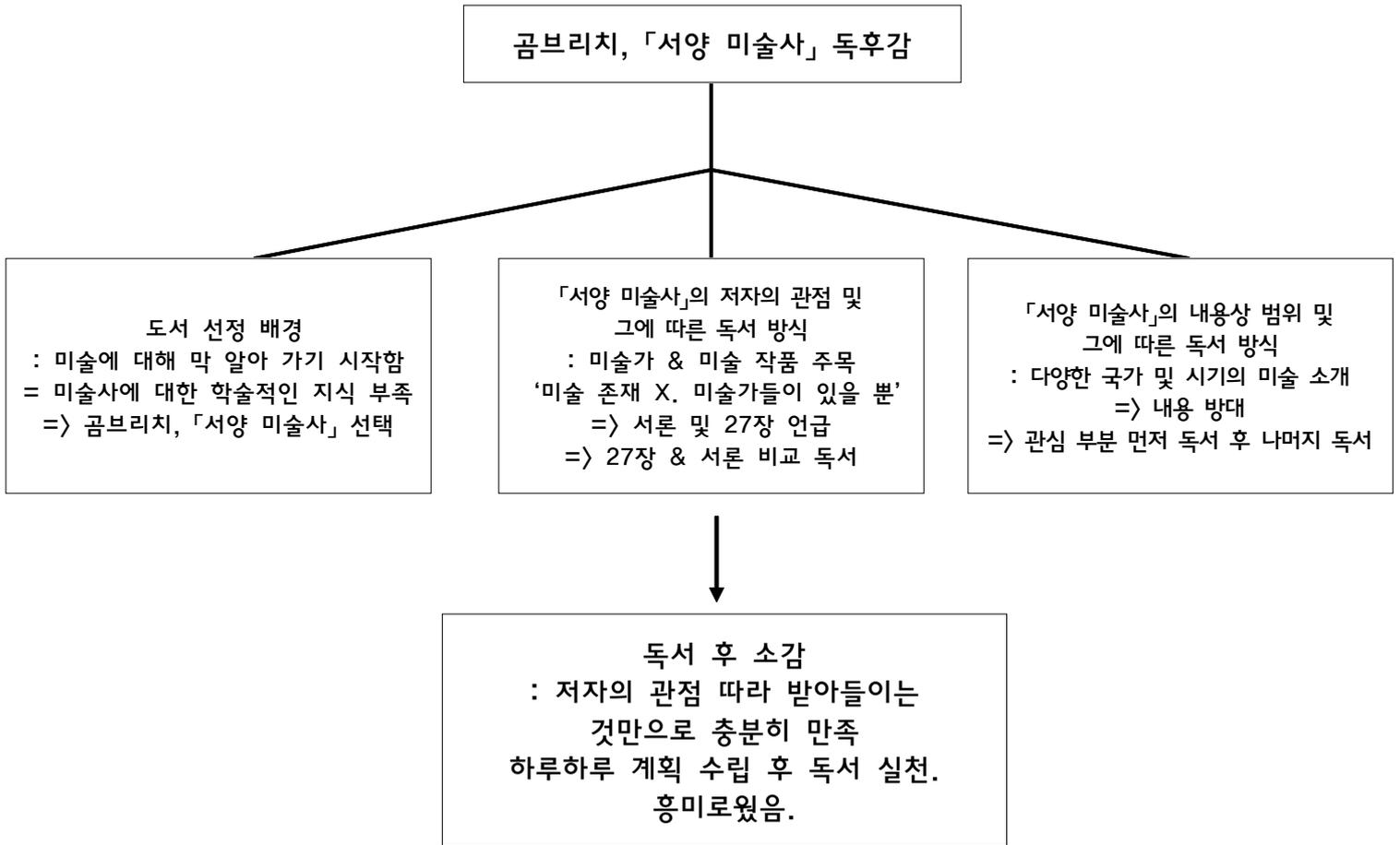
사후 독해 및 구조 파악

비문학 독서 지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화작스러운 지문이라, 어려운 정보가 담겨 있지도 않고 따라서 독해하기 난해한 것도 아니다. ‘비문학적인’ 독해보다는 좀 더 ‘화작스러운’ 독해를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부 내용 자체보다는 표현법이나 내용 전달법 등 형식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게 도움이 된다.

1문단에서는 책을 선정한 이유와 배경이 제시되었다. 2문단에서는 책의 구절을 인용하며 핵심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였고, 그 특징으로 인해 서론과 27장을 비교하며 읽었다며 자신의 독서 방법도 서술해 두었다. 3문단에서는 책을 읽기 전 들었던 생각과 이후에 책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점이 서술되었고, 말미에는 책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부분부터 읽고, 이후 나머지를 읽었다며 자신의 독서 방식을 추가로 서술하였다. 기본적으로 독후감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필자가 책을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게 좋다.

실전 독해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쉰 느낌에 들었으면 좋다. 사실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도 문제는 무방하게 풀리겠지만, 밑줄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가 될지 대강 예측하고 가는 것과 아닌 것 간에는 차이가 분명히 생긴다. “책이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뭔가 잘못된 건 아닌 거 같은데 속에서 막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나?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었으면, 그 내용에 관한 다른 여러 학자나 전문가들의 관점도 이리저리 찾아 보고, 저자의 관점과 비교도 해 보고, 거기에 내 생각까지 살짝 곁들여 주는 게 ‘모범적인’ 독후감 아닌가? 그럼 문제는 ㉡의 어딘가를 교정하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겠네.” 정도의 생각을 처음에 지문 읽자마자 했으면 아주 훌륭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복습할 때에는 체크해 두면서 다음에는 조금 세한 느낌이 들면 왜 세한지 약간은 생각하고 읽어 나가 보면 좋겠다.



독후감이니 만큼 구조 파악 역시 그다지 어렵지 않다. 독후감이라는 커다란 틀 아래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서술된, 잘 정돈된 글이다. 1,2,3문단이 각각 도서 선정 배경, 책의 핵심 내용 및 자신의 독서 방식으로 모두 동일한 계층으로 묶이고, 4문단에서 독서 후 소감을 서술하며 깔끔하게 마무리. 주목할 만한 점은 본 책에 대한 자신의 독서 방식을 2문단과 3문단에 총 두 차례 서술하였다는 점.

문제 풀이

1.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답 : ①

- ① 자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 ②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인가?
-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받은 책인가?
- ④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 ⑤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정답 근거 : ① 1문단 도서 선정 배경의 내용 그 자체다. 이하 생략.

오답 근거 : 생략.

2.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①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 ③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읽는다.
- ④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 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정답 근거 : ③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 모두 언급된 적 없다.

오답 근거 : ① 2문단 마지막 문장 그대로다. ② 3문단에서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다. ④ 4문단 마지막 문장. 분량이 많으니까 나눠서 읽을 계획 세워 놓고 읽었다고 했다. ⑤ 3문단에 서술된 독서 방식. 내용이 방대하기에 선택하게 된 방법이다.

3. 윗글을 쓴 학생에게 ㉠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답 : ⑤

- ①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는 게 좋겠어.
- ②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 ③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
- ④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
- 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어떻게 문제화될지 이미 다 예측하고 왔다. <보기>의 키워드만 보자. 다양한 해설, 사회·문화적 환경, 무비판적 수용 X, 자신의 주관. ㉠에 왜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다면 뻔하디 뻔한 내용이다. 해당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최소한 키워드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

정답 근거 : ㉠ ‘그대로 받아들여야’ = ‘무비판적으로’, ‘자신의 관점’ = ‘자신의 주관’으로 바뀌서 읽으면 된다. <보기>에 완벽히 부합하며, 글쓴이의 독서 방식 중 조언이 필요한 부분임이 확실. Paraphrasing이 영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국어도 결국은 이 ‘패러프레이징’의 연속이란 걸 명심하자. 말바꾸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오답 근거 : ㉡ ‘저자의 관점에 따라’ => 키워드에 어긋난다. ㉢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 보다는’ => 키워드에 어긋난다. ‘다양한 해설’은 <보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논의 주제 자체가 다른 선지다. ㉤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 <보기>와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이다.

출제 항목

• 내용 구성 시 고려한 사항

화법, 특히 발표문에서 단골 출제 사항이다. 글쓴이가 해당 주제를 어떻게/왜 선정했는지, 예상 청중/독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내용이 나오면 체크해두고 가자.

플러스알파

• Paraphrasing과 문맥적 동의어

패러프레이징. 다시 말해 ‘말바꾸기’다. 지문의 워딩을 그대로 선지에 박아놓았다면 그건 쉬운 선지다. 많은 선지들은 지문과 의미는 통하지만, 워딩을 교묘히 다르게 바꿔놓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지문의 워딩과 선지의 워딩을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문맥적 동의어화 시킨다’라고 표현한다. 사실상 국어실력의 전부가 이 패러프레이징과 문맥적 동의어화를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심하자.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실전 독해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라는 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효과가 크다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이 뭔데? 바로 개념 정의 나온다.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 개념 확실히 챙기고. 다음 문장은 광고의 목적. 자신의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해야 물건이 잘 팔리겠지. 오키 다음은? 앞 문장의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왜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문에서 굳이 설명해주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다. 바로 저 차별적 인지-선호를 통해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라는 걸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단 큰 주제는 광고인 거 같고, 서두에서 개념 정의 막 튀어나오고, 광고의 목적 나오고 그 목적이 왜 중요한지 연쇄되어 나온다. 이어지는 내용은 광고를 통해 판매자가 대체 독점적 지위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을까? 가보자.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갑자기 독점적 지위라는 워딩 던져 줬으면 그게 뭔지 개념 정의는 해 줘야지. 상품의 가격 결정력=독점적 지위 동의어화 해주고. 글자 그대로 이해하자. 구매자는 물량이 적을 때 더 비싸게 사니까, 그럼 물량(=공급량)을 줄이면 자연스레 비싸게 팔 수 있겠지. 따라서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한다는 건 = 그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네.

그럼 그게 곧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니까 => 독점적 지위를 얻는다는 건가? 더 읽어 보자. '이러한 지위'가 당연히 독점적 지위인 거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닌가 보다. 아 해당 상품으로 이윤을 봤다는 소문에 이끌려 신규 판매자가 증가하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그럼 원래 있던 기존 판매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지. OK.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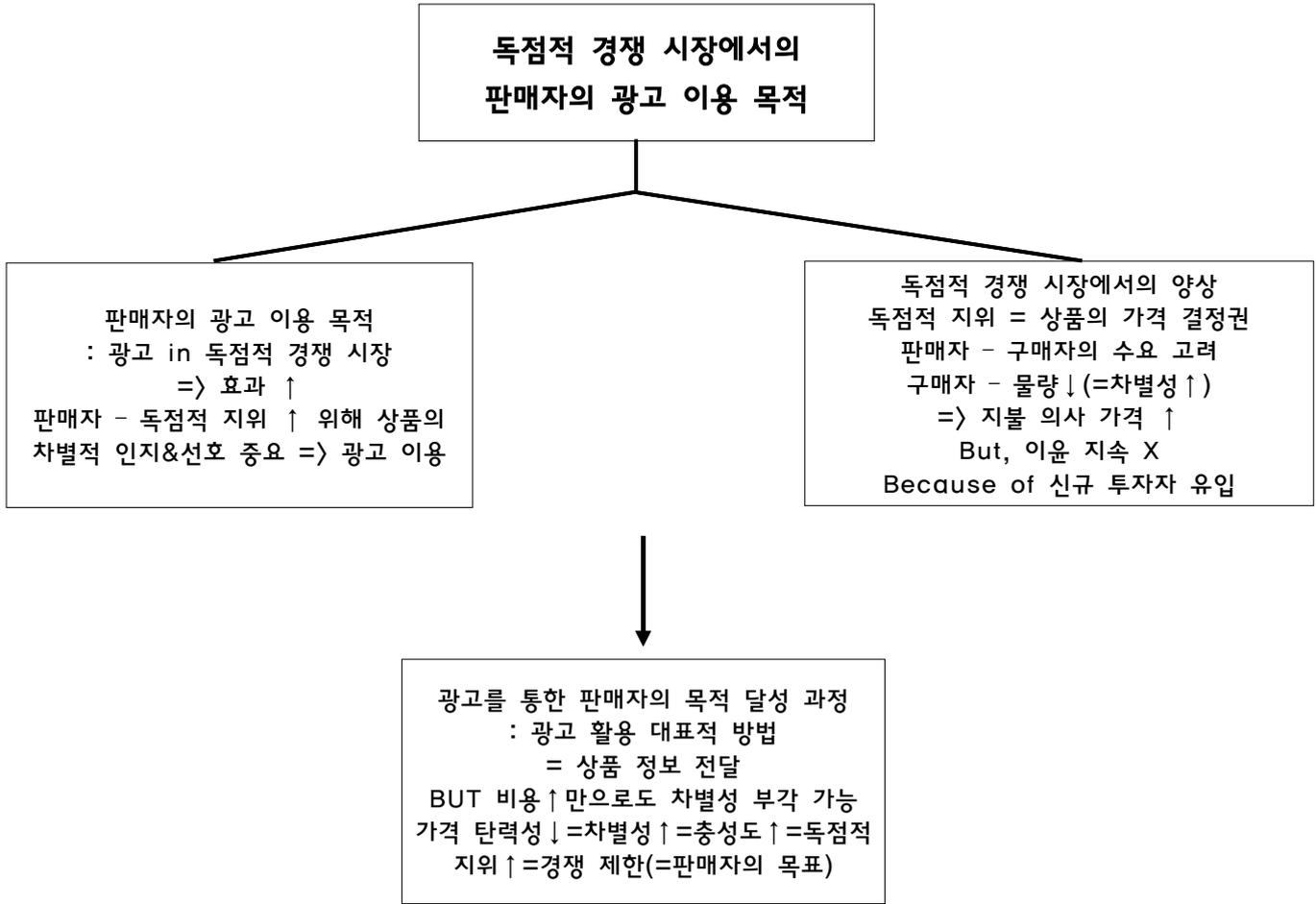
광고의 대표적 활용 방법 = 상품 정보 전달. 그 다음 문장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보충 설명 나오네. 구매자가 생각하기에 판매자가 자신 없는 상품에는 당연히 광고도 공을 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아 그래서 광고에 많은 비용을 들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차별성이 부각(=독점적 지위 강화)될 수 있다는 거군. 새로운 개념 나온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의 변화 정도. 구매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 => 해당 상품의 가격이 조금 비싸져도 여전히 구매할 거라는 정도의 의미겠군. '이처럼' 나왔으니까 앞 문장이랑 뒷 문장이 같은 의미. 구매자의 충성도 증가 =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감소겠네. 이는 곧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 강화. 비례/반비례 관계다. 뒷 문장과 바로 연결지어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 = 구매자의 충성도 ↑ =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 ↑ = 해당 상품의 차별성 ↑ = 경쟁을 제한. 비례식이 만들어졌다. 여백에다 꼭 써 놓을 것. 신규 판매자도 당연히 이윤을 내야 하니까(단기적으로나마) 차별성 높여서 독점적 지위 갖기 위해 광고 이용하겠지. 끝.

사후 독해 및 구조 파악

경제 지문 치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다.(사실 해당 시험 자체가 미치도록 난이도가 낮았긴 하다.) 새로운 경제학 개념들은 다소 나오지만, 그걸 이해하기가 결코 어렵지가 않다. 사후 독해 전에 실전 독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개념들. 일단 개념만 이해하면, 지문 전체를 훑는 건 더욱 쉬웠기에 사후적으로 분석했어야 할 부분은 이렇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독서 지문을 읽는 기본적 태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념 정의 나오면 확실히 머리에 박아 두어야 하고, 그렇게 박아둔 개념들을 지문 끝까지 끌고 가며 붙여 읽어야 한다. 판매자가 광고를 이용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기 상품의 차별성 증가를 통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의 확보에 있다는 점을 서두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 있었던 지문이다.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거기로 귀결된다. 꼭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



글의 대주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판매자가 광고를 이용하는 목적이다. 1문단에서는 배경 지식을 위해 관련 개념을 정의해 주고, 말미에서 글의 주제를 대놓고 던져 준다. 판매자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는 것. 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면 상품의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필요한데, 이를 광고가 충족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놓고 던져 주는 대주제를 놓치고 가면 바보겠지?

2문단에서는 1문단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독점적 지위의 개념을 정의해 준다. 바로 독점적 지위 = 상품의 가격 결정권이라는 것. 이후는 이러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보이는 양상.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적을수록 더 비싸게 살 의향이 있고, 판매자는 이를 고려하여 상품의 물량을 조절한다는 것.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상품의 물량 ↓ = 차별성 ↑이라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글의 모든 부분을 꿰뚫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차별성'이다. 판매자는 이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부가 정보. 신규 유입자 때문에 판매자의 이익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챙겨두어

야 할 부분이다.

3문단에서는 상품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정보 전달이고 하나는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 결국 둘 다 목적은 상품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의 개념 제시해 준 다음 차별성과의 관계 서술. 이어서 독점적 지위와의 관계를 서술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경쟁이 제한되는 과정임을 알려 준다. 신규 판매자 역시도 차별성 강조를 통한 독점적 지위 강화를 위해 광고를 활용한다며 마무리. 세 문단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다름아닌 바로 '차별성 강화'라고 볼 수 있다. 1문단에서는 대놓고 이것이 판매자의 목적이라고 제시해 주었고, 2문단에서 보여 준 판매자와 구매자의 양상도 결국은 차별성 때문이었다. 마지막 문단에서의 광고 활용 전략 역시 모두 차별성 강화를 위한 것.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 강화로 연결되고, 곧 판매자의 목적임을 서술함으로써 1문단의 떡밥을 완벽하게 마무리지었다.

실전 독해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라..? (가) 지문은 광고주가 자기 목적에 따라(=의도대로)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뤘었는데? 그리고 ⊖ 경쟁을 촉진해? 아 이거 (가)랑 완전 대립되는 지문이네. (가) 지문에서는 광고가 판매자의 목적에 따라 활용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과정을 다뤘었는데 말이야. 오케이 핀트 잡았고. 근데 이 경쟁 촉진 효과는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하는데, 특히 가격에 민감해지면 판매자는 가격 경쟁에 돌입한다. 생각을 해 보면 당연하겠지.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다는 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를 확 줄여버린다는 거니까. 판매자들은 상품을 더 많이 팔려고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은 광고 때문에 신규 판매자가 쉽게 진입하면 촉진된다네. 뭐 당연한 얘기네 이것도. 경쟁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경쟁은 촉진되겠지? (가) 지문과 붙여 읽어 보면 당연히 독점적 지위는 약화. 가격 경쟁이 박세지니까 소비자는 낮아질 거고. 당연한 얘기 뿐이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①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광고 영향의 범위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는구나. 광고가 소비자의 욕구를 환기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가져온다네. 어 당연히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 새상품을 사고 싶어질 거고, 그만큼 유행도 빨라지겠지. 이렇게 촉진된 소비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거기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증가로 고용과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금 구매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술술 읽히지 않나? 그만큼 내용의 디테일이 우리 상식 선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되는 지문이야. 굳이 비례/반비례 관계를 체크하자면 광고 => 소비자 욕구 ↑ => 소비 ↑ => 생산 활동 ↑ => 고용·투자 ↑ => 소득 ↑ 정도로 머릿속에만 박아 두고 가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개념 정의. 한계 소비 성향 = 경제 전반 소득 증가 대비 소비 증가 정도. 항상 새로운 개념은 확실히 챙겨두어야 하고. 이는 항상 (+)으로 고정되어 있나봐? 이렇게 어떤 요소가 항상/경우에 따라 고정/변화하는지의 여부는 꼭 체크해 두자.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환경 오염? 항상 밝은 면만 보여주진 않는 법이지. 소비+생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필연적이라는 거네. 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아무도 지불하려 하지 않으니까.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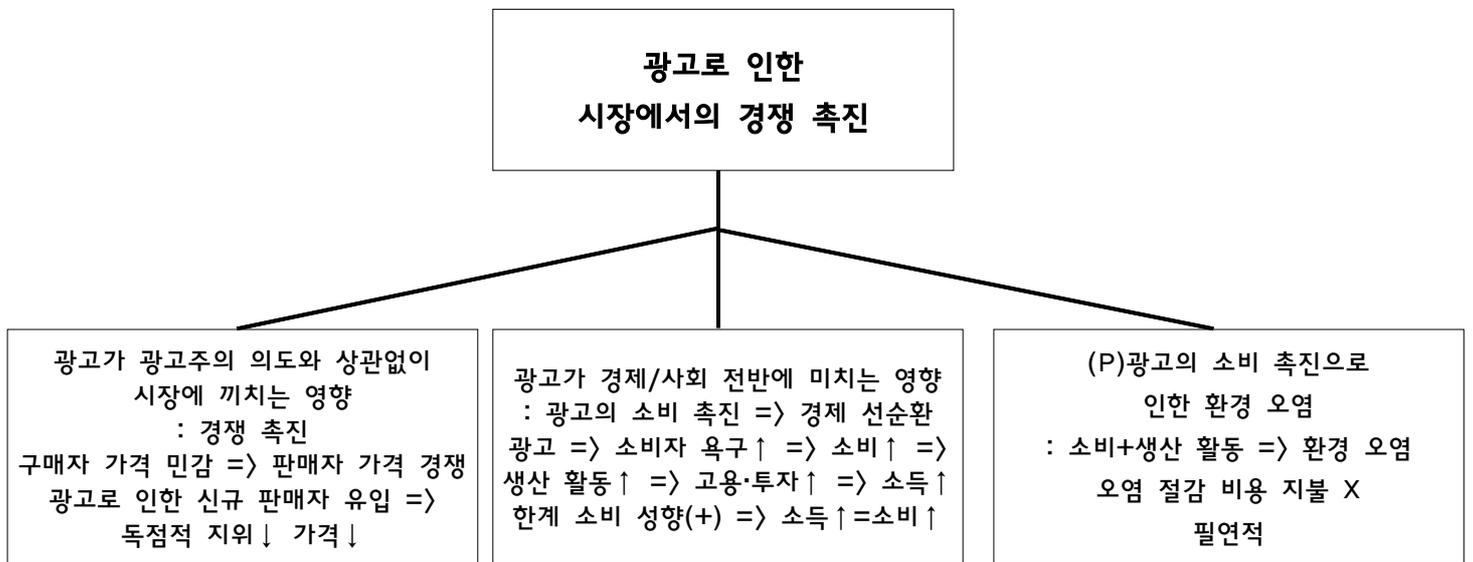
사후 독해 및 구조 파악

(가) 지문에 비해 문단 간의 유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1문단의 내용은 명확히 (가) 지문과 대비되는 게 확실한데, 2,3문단으로 진행될수록 화제의 범주가 더욱 확장되는 지문.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은 (가) 지문에

서 다 설명하고도 남았다. (나) 지문에서의 논의 주제 확장은 필연적이었다는 것. 물론 글의 세부 사항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만큼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코 읽기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다.

1문단에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경쟁을 촉진한다는 부분을 읽자마자 (가) 지문과의 확실한 대립을 느꼈으면 좋겠다. (가) 지문은 판매자들이 자신의 목적(차별성 강화를 통한 독점적 지위 강화)을 위해 광고를 활용하는 과정을 담았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광고주의 의도대로 광고가 효과를 발휘하는 과정을 말한다. (나) 지문과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대비를 이룬다는 것.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지는 것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바뀌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복합 지문 세트는 필연적으로 두 지문을 연결지어 가며 읽을 수밖에 없는데, 해당 부분이 (가) 지문에서 이미 체크해 놓은 가격 탄력성의 개념 정의 자체라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



1문단 전체가 (가) 지문과 대비를 이루는 내용투성이다. (가) 지문의 주제는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한 결과 경쟁이 제한되는 과정을, (나) 1문단은 반대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쟁이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을 다룬다.

2문단은 이러한 광고의 경쟁 촉진 효과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화제 범위를 확대한다. 경쟁의 촉진으로 인한 소비의 증가와 그로 인한 생산 활동의 증가, 뒤따라오는 고용·투자의 증가에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구매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서술해 놓았다. 한계 소비 성향의 개념에 대한 부가 정보는 덤.

3문단은 논의 범주가 아예 달라졌다. 이러한 소비의 촉진이 환경 오염을 필연적으로 일으킨다는 것. 논의 대상의 문제점(Problem)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문제 풀이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 ①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근거 : ② (가) 지문의 주제와 내용 그 자체다. 심지어 모두 1문단에서부터 던져주는 내용. 이하 생략.

오답 근거 : ① 광고의 개념을 따로 정의해 주지는 않았다. ③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④ 광고가 소비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2문단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 부분이다. 그러나 수용 시 유의할 점이라곤 제시된 바가 없다. ⑤ 제도 마련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5.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 ②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③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 ④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정답 근거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했다. 애당초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만 그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고, 자연스레 가격도 조절되는 것이다.

오답 근거 : ① 신규 판매자는 광고에 이끌려 오히려 더 유입된다. ② 정의 그대로다. 이하 생략. ④ 독점적 지위로 인한 이윤은 단기적일 뿐이다. ⑤ 광고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얻는 과정

그 자체다.

6.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 ①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 ②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 ③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 ④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정답 근거 : ② 한계 소비 성향의 개념 확실히 잡아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경제 전반의 선순환 = 소비의 증가가 결국에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한계 소비 성향과 경제의 선순환 정도는 비례할 수밖에 없다.

오답 근거 : ① 광고가 소비자에게 수용되어 소비가 촉진되는 과정 그 자체. ③ 비례식 기억! 광고 => 소비자 욕구 ↑ => 소비 ↑ => 생산 활동 ↑ => 고용·투자 ↑ => 소득 ↑ ④ 생략. ⑤ 3문단의 주제.

7.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 ① ㉠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 ②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 ㉡의 결과로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 ③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 ④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 ⑤ ㉠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하고, ㉡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정답 근거 : ① ㉠은 경쟁 제한, ㉡은 경쟁 촉진이다. (가) 지문에서 비례식만 잘 세워냈으면 바로 ①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 = 구매자의 충성도 ↑ =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 ↑ = 해당 상품의 차별성 ↑ = 경쟁을 제한.

오답 근거 : 위 비례식에 근거하면 모두 틀린 선지다. 이하 생략.

8.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밑줄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대상: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기획 근거: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광고 개요: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

- ①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 ②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 ③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 ④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보기〉 해석부터 하자. ‘갑’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유입된 신규 판매자이다. 당연히 광고를 활용하려 할 것. 경쟁사인 ‘을’ 기업은 광고 전략으로 PPL을 채택 큰 비용을 들인, (가) 지문에서 제시한 광고 활용의 두 번째 방법. 반면 ‘갑’ 기업은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므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근거 : ③ 광고를 통해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이윤을 보게 된다면, 장기에는 필연적으로 신규 판매자가 더 유입되어 경쟁은 더 강화된다.

오답 근거 : ① ‘갑’이라는 신규 판매자의 유입으로 인해 기존의 독점 기업인 ‘을’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사례에 완벽히 부합한다. ② 경쟁 촉진이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④ 생략. ⑤ 가격 탄력성↑ = 독점적 지위↓ = 경쟁 촉

진. 당연히 기업의 상품 가격 결정력은 약해진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① 반입(搬入)되므로
- ② 삽입(挿入)되므로
- ③ 영입(迎入)되므로
- ④ 주입(注入)되므로
- ⑤ 투입(投入)되므로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때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맥락이다. 특히나 서술어의 의미 파악은 대부분 해당 단어의 주어나 목적어가 무엇인지에 의해 판가름난다. 국어사전을 머리에 박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런 어휘 문제는 대부분 맥락에 근거해서 가장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찾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어 Native이니까.

정답 근거 : ㉠ 투입되다 :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넣어지다. ㉡ 들어가다의 주체는 생산 요소이다. '동전 투입구'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추 가능하겠다. 동전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기 위한 자원이고, 생산 요소도 상품 생산을 위한 자원이니까 맥락상 주체 일치.

오답 근거 : ① 반입되다 : 운반되어 들어오다. ② 삽입되다 :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가 넣어지다. ③ 영입되다 : 회사나 조직의 일원으로 맞아들여지다. ④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져 넣어지다.

출제 항목

• 예외/불변 사항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A를 설명해 놓고 소수의 not A인 경우를 제시하거나, A는 항상 적용되는데 B라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식. 5번 문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구를 통해 후자의 불변 사항(판매자는 항상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을 서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러나' 따위의 부사어구는 보자마자 조건 반사적으로 체크해두고, 이를 기점으로 앞뒤 문장에서 하는 말이 약간 다르겠구나 하고 넘어가야 한다.

• 개념 정의

독서 지문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미리 알아두기가 쉽지 않은 이론 혹은 개념을 소재로 한다. 즉 해당 소재에 대한 우리의 배경지식이 없다는 전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이론 혹은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해줄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당연히 챙겨 두고 가야 한다. 해당 정의 자체를 외워 두면 베스트고, 최소한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해 놓고 가야 한다.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배경지식이다. 명심하자.

• 비례/반비례

단골 출제 항목. A가 증가(감소)하면 B는 증가(감소)하고, 이에 따라 C는 증가(감소)하는 식의 비례/반비례 관계는 일단 나왔다 하면 위아래 화살표(↑↓) 그어놓고 가자. 가장 올바른 태도는 해당 비/반 관계가 대체 '왜' 그러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왜 구매자의 충성도는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왜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되는지... 물론 본 지문에서의 비/반 관계는 그 원리를 추론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기에 술술 읽혔지만, 모두가 그러리란 법은 없는 법. 물론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도 끝까지 지문에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끙끙대는 건 미련한 짓.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 관계 추론에 실패했다면, 미련 없이 화살표만 긋고 넘어가는 게 맞다. 어차피 그래도 문제는 풀린다.

플러스알파

• 반복의 중요성

지문에서 특정 단어/구/절이 반복되는 건 “제발 나 좀 주목해줘!!”라는 지문의 발악이다. 문학에서만 반복이 중요한게 아니다. 독서에서도 반복은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자체다. 해당 항목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문도 굳이 똑같은 말 써 가며 강조하는 것이다. 1문단에서 A라는 단어를 보고, 2문단에서 또다시 A라는 항목을 발견했다면 제발 다시 1문단으로 돌아가서 A가 대체 뭐길래 반복하는 건지를 보고 와야 한다. 이게 강사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붙여 읽기이고 유기적 독해이다. 별 게 아니다. 반복되면? 돌아가자!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실전 독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 두 관점 대립하려나 보다. 종교적 인간관 : (물리적 실체=몸) + (비물리적 실체=영혼). 영혼은 몸이랑 구별되고, 결정의 원천이래. 반면(↔) 체크하고! 대립되는 관점 나오겠지. 유물론적 인간관 : 물리적 몸만 있다네. 영혼 존재 부정! 따라서(=) 결정은 단지! 뇌의 신경 사건. 오케이 두 관점 간의 대립점 확보 완료! 근데 글에서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전제로 할 건가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물음표 나왔다. 질문(Q) 던져 준 거지. 즉(=) 나왔으니까 동의어 처리하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 자유의지가 있는 것. 뒤에는 예시를 통한 질문 구체화! 딸기와 초코 우유의 자유의지 선택 가능 여부. Q가 나왔으면 그에 대한 답(A)을 찾아 나가는 게 지문의 목적이겠네. 다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질문이 뭐였는데? 앞에 나온 Q :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잡고 가자. 반자유의지 논증 : 자유의지 없대. 이게 Q에 대해 반자유의지 논증이 내린 해답(A)이겠네! 이유 당연히 나올 거고. 어떤 선택은 선결정 or 무작위. 근데 무작위 = not 선결정. 오케이? 둘 사이에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완전 반대 의미란 거지. 아무튼 우리에게 A를 제공해준

반자유의지 논증은 둘 다를 모두 고려한대. 첫 번째가 선결정 가정. 뭐 당연히 애가 제시한 해답 자체가 자유의지 X니까.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딸기우유를 선택할 게 결정되어 있었다면 그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뭐 납득 가능. 두 번째는 무작위 가정. 역시 자유의지 X (당연히 둘 다 자유의지 X니까 최종 결론 역시 자유의지 X겠지). 이 가정에 따르면 갑의 결정은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대전제인 유물론적 인간관의 관점이지)이니까 역시 자유의지 없다네. 역시 납득은 가능할 거 같아.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본격적인 대립은 이제부터인가 보다. 어떤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을 비판하는 다른 이론을 제시하며 둘을 대립시키는 건 지겹도록 나오는 구조지. 바로 ㉠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앞에서 반자유의지 애들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 자유의지는 없다고 결론 내렸었지. ㉠은 그 두 가지 가정 중 하나인 선결정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이지만, 무작위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자유의지 논증이 내린 해답(A₁)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게 또다른 해답(A₂)이 되겠네. 납득했고. 다음은 이유.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던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자유의지를 긍정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1) 내가 그 선택의 주체. 2) 선결정 X.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으면 뭐 당연히 조건 2)와 충돌. 아 그래서 A₁의 첫 번째 가정인 선결정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네. OK. 근데 갑자기 딴 소리?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게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라는 건데, 자유롭게 선택 = 하고자 원했던 것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네. 관점에서는 선택의 선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자유의지는 긍정되나 보다. 뭐 말은 이해된다. 글자 그대로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그게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건 말건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원했던 것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건 다 자유의지의 산물이겠지. 근데 이런 자유의지는 ㉢ 우리가 여태 쪽 다뤄왔던, 조건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는 다르다네. 어 그치 ㉔ 자유의지는 조건 2)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니까? 오키 다음.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㉔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다음은 반자유의지 논증의 두 번째 가정, 즉 무작위 가정을 고려했을 때에 대한 ㉔의 입장이겠네. 앞서 말했듯 이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A₁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한 거지.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도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는 거야. 즉 조건 1)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지. 대전제인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선택 = 뇌의 신경 사건이지. 이 선택이 선결정X, 즉 무작위라고 가정해 봐도, 이 가정이 뇌의 신경 사건(=선택)인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에 갑은 여전히 그 선택의 주체라는 거네. 어찌됐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한 건 맞으니까. 고로 A₂가 도출됐네. ㉔ 무작위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A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끝.

사후 독해 및 구조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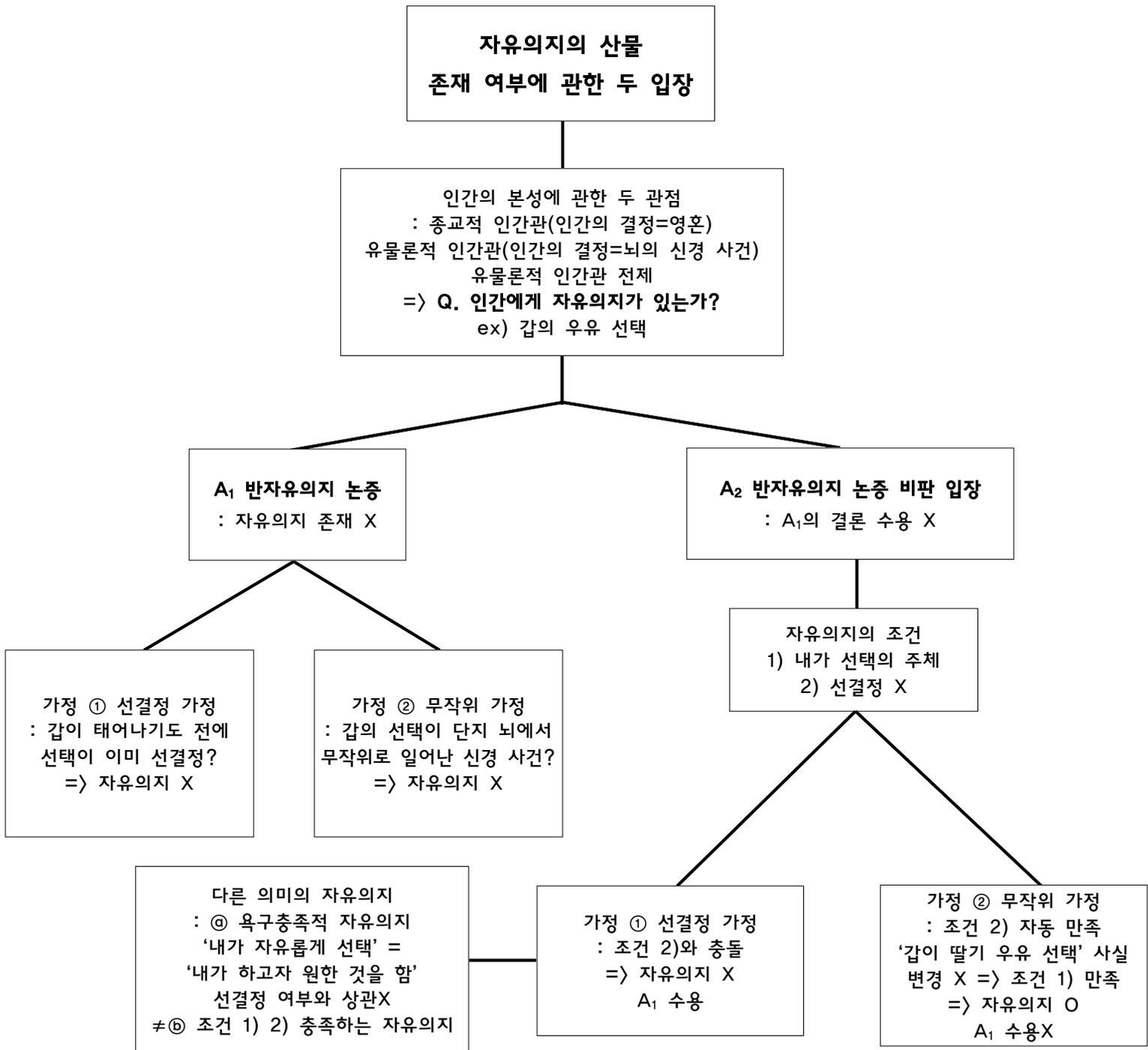
서두에서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을 대비하는 ‘척’ 하다가 결국 전제는 유물론적 인간관으로 확정. 이때부터 둘 간의 대립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글의 대전제 자체를 유물론적 인간관으로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 다만 그럼에도 대립을 해 준건 맞기에 두 관점의 대칭점 정도만 잡아주고 가면 되겠다. 종교적 인간관은 물리적 실체(=몸) + 비물리적 실체(=영혼) 인정. 결정의 원천 = 영혼 <-> 유물론적 인간관은 물리적 실체(=몸)만 인정. 결정 = 뇌의 신경 사건.

질문(Q)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A)를 제시하는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특이점이 라면 Q에 대한 A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것. 하나가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A₁), 다른 하나가 ㉔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의 결론(A₂). Q 하나에 A 두 개.

A₂가 A₁을 비판하는 논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 A₂가 A₁의 전부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 A₂가 자유의지의 조건 1)과 2)를 새롭게 제시하였고, 이 조건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따라 자유의지의 산물 여부를 규정하였다. A₁의 가정 중 첫 번째 가정인 선결정 가정은 가정부터가 조건 2)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따라서 A₁의 첫 번째 가정에 의한 결론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두 번째 가정인 무작위 가정은 조건 1)과 2)를 모두 만족시키므로 자유의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A₁의 두 번째 가정에 의한 결론은 거부. 둘 모두

를 받아들여야 A₁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므로 최종적으로는 A₂는 A₁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 무작위 가정을 전제하더라도(이 순간부터 이미 조건 2)는 만족한다.) 그 선택의 주체는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곧 조건 1)을 만족, 따라서 그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선택의 주체가 나라는 것. 즉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한 행위에서 그 선택의 주체가 갑 그 자신임은 그것이 무작위로 일어났던 아니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 풀이

10.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근거 : ⑤ A₂의 두 가지 가정 중 하나는 선결정 가정이다. 당연히 고려한다.

오답 근거 : ① 첫 문단의 약한 대립항 중 하나이자 글의 대전제인 유물론적 인간관이다. 이는 물리적 실체(=몸)만 인정한다. ② 뇌의 신경 사건으로 본다고 했다. ③ 종교적 인간관은 비물리적 실체(=영혼)도 인정한다.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영혼이 결정의 원천이라고 했다.

11.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과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정답 근거 : ④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은 1) 내가 선택의 주체, 2) 선결정 X이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조건 2)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는 있을 수 없다.

오답 근거 : ①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선택 =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함으로 본다. 따라서 당연히 ㉠는 있을 수 있다.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는 것은 ㉡의 두 조건 1)과 2) 어디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함과 동시에 내가 그 선택의 주체 이고(조건 1)), 선결정되지 않은 것(조건 2))이라면 얼마든지 ㉡가 있을 수 있다. ③ ㉠는 선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고자 원했던 것을 한다면 성립한다. 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는 점에서 이미 ㉠는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조건 2)를 만족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조건 1)만 만족한다면 ㉡ 역시도 있을 수 있다.

‘원해서 하는 것’의 여부와 ‘선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두 가지를 조건으로, 각각의 조건을 만족/불만족할 시 ㉠, ㉡의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 앞의 조건은 ㉠, 뒤의 조건은 ㉡와 연관이 있

다는 점만 지문에서 잘 캐치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근거 : ㉡ A_2 가 A_1 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선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건 2)는 무작위를 가정하는 그 자체로서 선결정을 전제하지 않기에 자동 만족이고, 그럼에도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기에 조건 1)도 만족하기 때문에 무작위 가정 하에서는 자유의지의 산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함축하는 선지는 ㉡.

오답 근거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의 관점인데, 어차피 A_1 이던 A_2 던 유물론적 인간관이라는 카테고리에 같이 묶여 있다. ㉠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② 당연히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닌, 즉 선결정되어 있다. 이는 A_1 과 A_2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 ③ ㉡ 욕구충족적 자유의지는 선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A_2 가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부연 설명한 부분이므로 ㉠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④ A_2 는 A_1 중 선결정 가정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함을 당연히 인정한다. 이는 ㉠의 이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다.

13. 윗글의 ㉠에 입각하여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A]

정답 : ④

-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가설은 결론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가야 한다. 가설이 검증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렇다면 해당 가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다면 해당 내용은 참이라고 검증되는 것이다. 반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은 거짓임이 역으로 검증된다.

정답 근거 : ④ <보기>의 가설을 한 마디로 함축하자면, ‘모든 결정은 선결정되어 있다’ 정도이다. 매 선택 이전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하는 신경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모든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모든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므로(=무작위로 일어나는 선택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A2)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은 선결정과 무작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 따라서 A1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여전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오답 근거 : ① 가설이 입증된다면, 모든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음이 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더욱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② 모든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음이 참이라면, 무작위로 일어나는 선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작위 가정

이 참일 수밖에 없기는커녕 무작위 가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③ 모든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선결정되지 않는 사건(=무작위 사건)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선결정 가정이 참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⑤ 가설이 입증된다면 모든 사건이 선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A_1 의 선결정 가정의 결론을 받아들이고, 무작위 가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도 있다는 것이므로 A_1 의 무작위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가설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 수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틀린 선지. 가설 〈보기〉 문제는 이전 기출에 이미 출제된 바가 있다. 그 문제에서는 〈보기〉에서부터 가설이 입증됐음을 전제하였는데, 이 문제는 한층 더 나아가서 선지마다 가설 입증 여부를 달리함으로써 생각해야 할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몇 년도 기출인지는 추후 첨부)

출제 항목

이렇다 하게 꼭 짚을 만한 출제 항목을 꼽기는 어려운 것 같다. 세부 요소에 집착하기보다는 글 전체를 압도하면 되는 지문,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 어렵지 않은.

플러스알파

• 예시

지문에서 예시를 준다는 건 “너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 그럼 구체적 사례 하나 줄 테니까 이걸로 이해해봐!”라고 지문이 친절하게 던져 주는 것이다. 주로 본 지문은 1문단 말미에서 던져 준 갑의 딸기우유/초코우유 선택 예시 하나만으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케이스는 좀 특이한 경우이지만, 다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개념을 처음 접하는 독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거나 생소한 경우, 곧바로 관련 예시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전 독해에서는 예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해하면 된다. 우선 예시를 통해 개념을 어렵잡아 이해하고, 문제 풀 때 돌아오면서 아 그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하고 문제 풀면 끝.

• 페이크 대립항?

1문단에서 약간 혼동이 왔을 수 있다. 필자도 그랬듯, 처음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는 1문단을 읽고 누구나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의 대립이 지문의 큰 뼈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 지문의 대전제는 유물론적 인간관이었고, 종교적 인간관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대립항에 불과했다. 비록 지문의 큰 축을 이루는 대립쌍은 아니었지만, 항목 간 병렬 나오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고 가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 이러한 지문의 변칙적 구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나 저제나 독해에서의 행동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9

실전 독해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

시작부터 개념 정의. ‘메타버스(metaverse)’ = ‘메타(meta):초월’ + ‘유니버스(universe):세계’ = 현실세계 & 가상공간의 적극적 상호 작용 공간. 현실과 가상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개념 자체로 대비된다는 것도 잡아주고. 이어서 곧바로 또 개념 정의. 감각 전달 장치 : 메타버스(이것의 개념 역시 바로 앞에서 정의해 줬다는 거 기억하기!) 속 아바타(=사용자를 대신하는 것. 관형절을 통한 또다른 개념 정의다.)의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상 공간 현실감 있게 체험 => 메타버스에 몰입. 감각 전달 장치의 개념과 더불어 그 역할까지도 제시해 줌. 직진.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가상 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2문단도 개념 정의로 시작. 아무래도 기술 지문인거 같은데, 제재 특성상 생소한 기술적 용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므로 당연히 개념 정의도 짚을 수밖에. 연연하지 말고 할 거 하면서 들어가면 된다. HMD : 시각 전달 장치. 가상 공간 표현하는, 시차 있는 영상 전달. 사용자는 이 영상을 뇌에서 조합, 그 과정에서 입체감 느낌. 기술 장치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장치별 역할도 달려 나오는 거다. 그 다음도 개념 정의. 가상 현실 장갑 : 가상 공간 물체를 접촉하듯 사용자 손에 감각 반응 전달. 크기, 형태, 온도 등도 느끼게 함. + 사용자가 아바타를 움직이게도 할 수 있음.

2문단에선 두 개의 장치 개념이 나왔다. 하나는 HMD, 다른 하나는 가상 현실 장갑. 1문단에서 제시된 감각 전달 장치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인다는 것과, 각 장치를 통한 정보 전달의 방향성 역시 체크해두며 가자. 다음.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은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다.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개념 정의 연속.. 지겹다. 공간 이동 장치 :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 여기서 뭔가 어 앞의 것들이랑은 방향성이 좀 다른데? 하고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 놓고 다시 보니 아 애초에 1문단에서 나온 감각 전달 장치와 여기서의 공간 이동 장치는 카테고리가 다른 거구나. 약간의 대비는 잡고 가야겠네. 근데 그 역할은 역시 몰입도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 이어서 공간 이동 장치의 예시 하나 나온다. 가상 현실 트레드밀 : 일정한 공간 설치, 360도 방향 이동 가능 위함. 뭔가 뒷 문단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 같다. 다음.

[A]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는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HMD : 머리에 쓰는 3D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

*시차 : 한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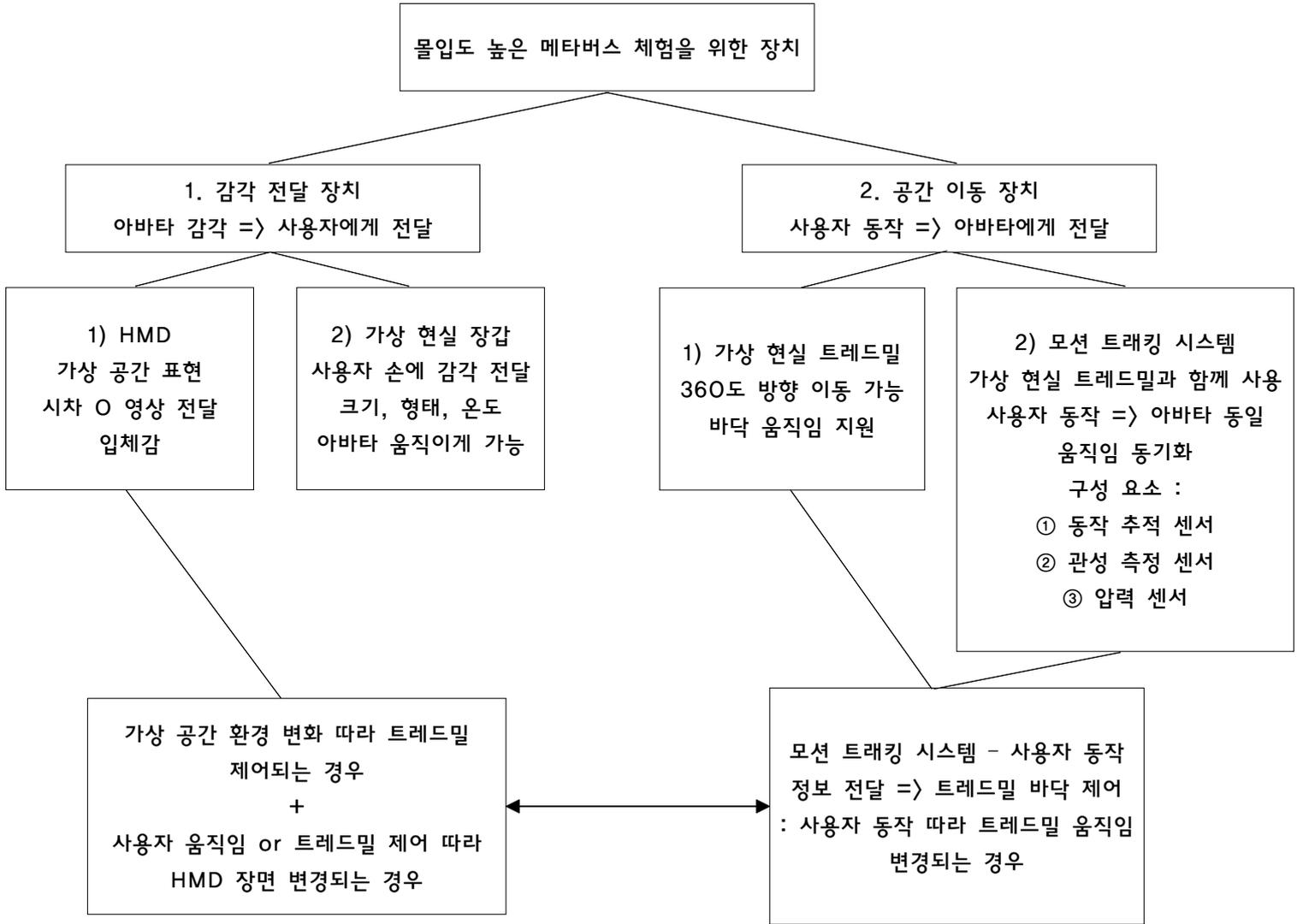
역시 가상 현실 트레드밀에 대한 얘기네. 근데 그 자체는 아니고,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란 걸 던져 준다. 사용자 동작과 동일하게 아바타가 움직이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 개념 잡고. 기술 지문의 필수요소, 구성 요소 나왔다.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이후 각 요소별 역할. 동작 추적 센서 : 사용자 동작 파악. 관성 측정 센서 : 사용자 이동 속도 변화율 & 회전 속도 측정. 압력 센서 : 물체 간 작용 압력 측정. 이 중 압력 센서에 관해서만 구체적 예시 제시. 가볍게 넘어가 주고. 어쨌든 이 요소들을 통해 파악된 사용자 동작 정보를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컴퓨터에 전달 → 컴퓨터는 이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 제어. 이들을 묶어주는 큰 카테고리는 공간 이동 장치이고, 이것의 역할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한다는 것임을 한번 더 상기하고 붙여 읽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체크해주고, 앞의 경우는 사용자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을 제어하는 경우. 좀 다른 경우로, 가상 공간 환경에 따

라 트레드밀이 제어되는 경우도 있단다. 대비시켜 주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움직임이나 트레드밀 변화에 따라 뭐? HMD의 가상 공간 장면이 변경되기도 한단다. 앞에 '또한'이라는 표지로 연결된 부가 정보네. HMD가 뭐였는데? 감각 전달 장치 중 시각 전달 장치지. 오케이 끝.

사후 독해 및 구조 파악

가장 큰 카테고리 두 개는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이다. 전자의 항목으로 HMD와 가상 현실 장갑, 후자의 항목으로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있다. 이 두 카테고리를 처음부터 잡아나가는 게, 직접적으로 “감각 전달 장치로 HMD와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라는 식으로 던져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HMD는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이고 가상 현실 장갑은 촉각을 전달하는 장치네? 시각과 촉각은 당연히 감각이라는 큰 범주로 묶일 수 있잖아? 하고 생각해 줄 수 있다. 두 카테고리의 공통점이라면 역시 사용자의 메타버스 체험 몰입도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 차이점은 정보 전달의 방향성에 있다. 감각 전달 장치는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로,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공간으로 정보의 전달이 일어난다는 것. 잡고 가자.

또 하나의 구조적 특이점으로는, 두 카테고리 중 하나의 항목에 대한 비중이 눈에 띄게 크다는 점이다. 글의 마지막 문단 전체가 공간 이동 장치의 하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그와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서술하는 데에 할애되었다. 심지어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공간 이동 장치 중 하나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쓰인다는 이유로 그 구성 요소까지 낱낱이 파헤치며 친절히 설명해준다. 앞의 카테고리인 감각 전달 장치의 두 항목(HMD, 가상 현실 장갑)의 서술과는 확연히 대조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문제 풀이

14.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 ⑤

- ①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 ②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 ③ HMD는 사용자가 시각을 통해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 ④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 ⑤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정답 근거 : ⑤ 정보 전달의 방향성은 단 두 가지 형태뿐이다. 사용자에서 아바타인가/아바타

에서 사용자인가. 아바타 간 상호 작용이라는 방향성은 지문에서 제시된 바가 없다.

오답 근거 : ① 두 카테고리 간 공통점은 사용자의 메타버스 몰입도 향상이라고 했다. ② 공간 이동 장치 개념 정의 부분 내용 그대로다. 정보의 방향성도 체크하라고 했다. ③ HMD는 감각 전달 장치 중 하나로, 그 중 시각을 통해 입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몰입에 기여한다. ④ 감각 전달 장치의 개념 정의 부분 그대로다. 정보의 방향성도 체크하라고 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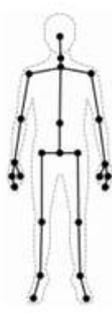
-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 ②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한다.
- ③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⑤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정답 근거 : ③ 글 말미의 부가 정보 부분에 근거가 있다.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이 제어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이 제어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때 변경되는 요소로는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있다고 했으므로 완벽히 맞는 선지.

오답 근거 :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과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다소 지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술 지문에서는 각 장치의 기능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선지. ②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할 수 없다. 애초에 카테고리가 다르다. ④ 정보 전달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놔야 한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공간 이동 장치와 함께 쓰이고,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의 동작을 아바타에 전달하는 것이므로, 방향성이 반대로 서술된 선지이다. ⑤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이 제어되는 경우는 제시된 적이 없다. 가상 현실 트레드밀이 제어되는 경우로는 첫째,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른 경우. 둘째,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른 경우가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는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면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키넥트 센서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림>

정답 : ①

- ①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 ②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 ③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
- ④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 ⑤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지문에서 간략하게 제시된 정보를 <보기>를 통해 부연 설명 및 구체화하는 유형이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동작 추적 센서를 또다시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추가 설명하고 있다. 지문에서 뭔가 설명이 좀 빈약한데? 싶은 부분은 이렇게 종종 <보기>를 통해 심화 및 구체화되어 3점 문제로 출제되는 편이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동작 추적 센서 중 하나인 키넥트 센서(여기까지의 카테고리 이름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한다.)의 구성 요소 두 개 중 1)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한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한다. 2) RGB 카메라는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면'으로 명확하게 던져 준 대조점이니 꼭 잡아가야겠다. 1)의 제공 정보인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2)의 제공 정보인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면, 최종적으로 키넥트 센서는 <그림>과 같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정답 근거 : ①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로,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장치이다. 사용자는 명백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따라서 센서의 카메라 역시 현실 세계에서의 작동을 전제로 한다. 거리를 측정한다는 말은 언급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가상 공간에서 작동하는 장치도 아니다.

오답 근거 : ② 키네틱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이고, 동작 추적 센서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의 구성 요소이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카테고리르 명확히 잡아 나감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능인지를 파악해 놓았어야 한다. ③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이므로 걷는 자세(=사용자의 동작)를 파악할 수 있다. 관성 측정 센서는 당연히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 ④ <그림> 역시 문제의 일부분임을 일깨워주는 선지. <보기>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용자의 얼굴 부분에는 대응점이 하나뿐이다. 얼굴 표정 변화까지 세세하게 구현하기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함을 추론할 수 있다. 명심하자, <그림>도 문제의 일부분이다. ⑤ 적외선 카메라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제공하고, RGB 카메라는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 둘을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키넥트 센서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완벽히 맞는 선지.

17.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 ①

- ①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
- ② 아내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을 조화롭게 맞추었다.
- ③ 우리는 다음 주까지 손발을 맞추어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 ④ 그 동아리는 신입 회원을 한 명 더 뽑아 인원을 맞추었다.
- ⑤ 동생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정답 근거 : ① 컴퓨터가 ~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 바닥을 제어한다고 쓰였다. 이때의 '맞추다'는 뭔가 합이 잘 맞는, 박자가 맞는 정도 따위의 의미로 맥락상 파악할 수 있다. ①번 선지에서 피아노 소리가 언니 노래소리와 박자가 딱딱 맞게 어울린다는 의미이므로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겠다.

오답 근거 : ② 색깔끼리 뭔가 잘 어울린다는 뜻이지만 ㉠와는 사뭇 다른 느낌. ③ 손발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잘 협력한다는 의미이다. ㉠와는 좀 거리가 있다. ④ 인원 숫자를 딱 맞게 떨어지게 한다는 뜻. ㉠와 유사한 의미는 아니다. ⑤ 친구와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다는 뜻이다. 나가리.

사실 이런 '문맥상 의미' 문제는 어휘의 사전적 정의를 외우고 있다고 해서 수학 공식마냥 딱딱 풀리는 문제 유형도 아니다. 말 그대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Native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틀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사전적 의미로서의 '맞추다'는 동사로서 3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1.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2.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펴다.
3.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룬다.

⑤번 선지는 2번 뜻으로 쓰였고, ④번 선지는 1번 뜻에 가깝게 쓰인 듯 하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3번 뜻에 가깝게 쓰였는데, 결국 문맥상 의미는 모두 다르므로 그 안에서 한번 더 걸러내야 하는 문제. 사전을 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지도 못할뿐더러.

출제 항목

• 개념 정의

기술 지문의 알파이자 메카. 생소한 개념이 나오면 지문에서는 정의해 줄 수밖에 없다. 기술 지문에서는 주제가 되는 핵심 기술 장치 그 자체로서도 새로운 개념이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배경 지식 역시 새로운 개념이다. 여기서 이걸 놓치면 글 전체를 안 읽는 것과 마찬가지.

• 공통점

대립 요소 간 공통점은 차이점만큼이나 중요한 출제 요소다. 절대절대 놓치지 말자.

• 부가 정보

문단 말미에 이전까지와는 약간 결이 다른 듯한 결다리 정보. 중요하지 않은 듯 설렁설렁 읽기 쉬운 부분인데, 십중팔구 문제화된다. 논의 범주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글을 주의깊게 읽고 있다면 쉽게 놓치지 않을 수 있다.

• 그림/표/그래프

지문 혹은 <보기>에서 <그림>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은 무조건 지문과 함께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지문이나 <보기>는 당연하게도 제시한 <그림>에 관해 서술하고 있을 것이며, 독자인 우리는 각 설명을 해당 <그림>에 대응시켜 나가며 읽어 나가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단순 부가 자료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림>도 문제의 일부임을 명심하자.

플러스알파

본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이상.

